정치에 대한 고통, 힐링이 필요해

“우리는 테러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편집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개개인은 고립되어 고통받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 개인적 집단적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59쪽)

아마,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로 이 책을 펼쳤던 것 같다. 대선 몇 달 전 얘기다. 기자 시절엔 정치부는 절대 내게 맞지 않는다며 멀리 했건만, 이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 트위터 타임라인엔 온통 정치 얘기 뿐이다. 정치 피로감에 시달릴 정도다. 그러나 어느 진영을 지지하듯, 정치에 흡족한 이가 있을까? 정치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고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투표권을 행사한 대한민국 국민 48%는 멘붕에 시달린단다. 이 고통을 어찌할 것인가.

책의 원제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부서진 마음으로 비통한 우리에겐 힐링이 필요하다. 정치적 스펙트럼에 상관 없이, 상대에 대한 분노, 나라에 대한 걱정은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일 터. 우리는 모두 왜 그리 절박했을까. 솔직히 중간중간 더디게 읽혔다. 그럼에도, 선거 후 다시 책을 펼쳤다. 어찌됐든 찬찬히 돌아보고자 했다.

상대는 악마가 아니다. 수꼴도 좌좀도 아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첨예하게 맞붙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다. 저자는 E. M. 포스터를 인용, “민주주의는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전제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환호하는 것은 다양성을, 그리고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란 거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창조적 갈등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당파주의는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다… 언젠가 "모두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는 환상을 좇지 않는다. 아무리 대화해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이가 좌파와 우파에 각각 15~20%..뒤집어보면 차이를 넘어 배우고 대화할 수 있는 이가 60~70%. 민주주의에서 그 정도면 곤경 벗어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55쪽)

나는 갈등이 없는 공공영역을 상상하지도 염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삶의 염원과 비슷.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갈등은 추방된다... 건강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창의성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등을 둘러싼 여러 비판적 질문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117쪽)

낯선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라는 것, 어떤 차이들은 삶을 풍부하게 하고 골치 아픈 차이들은 타협될 수 있다는 것, 갈등하는 이해관계에 직면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종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사회 속에 풍부할 때, 우리 국민은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생동하는 실체가 될 수 있다. (170쪽)

자신의 신념을 ‘적’에게 돌처럼 던지는 대신 고통의 근원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커다란 분리를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너무나 교과서적임에도 울림이 있다. 올곧은 신념의 소유자라기보다 실리적인 나는 이른바 수꼴과 좌좀까지 설득하고 품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 솔깃하다. 차이를 넘어 대화할 수 있는 국민이 양 극단을 빼고도 충분히 많은 건 분명하다. 국내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념 지형에서 중도 보수보다는 극우보수를 보수로, 중도진보를 종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중도 보수 혹은 진보라고 자평하는 시민이 훨씬 많지 않겠나.

정치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말자

민주주의는 광장이다. 아고라다.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직되고, 깨어 있는 의식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늘 환영 받았을 리가. 시민의 움직임은 종종 기득권, 권력의 저항에 부딪치곤 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1675년 당시 새 유행이던 커피하우스에 폐쇄 포고령을 내렸다. 시민들이 그런 장소에 모여 두런두런 으쌰으쌰 떠드는 자체가 불온했다. 사교와 담론의 공간, 공론장은 권력에게 불편한 법. 무지몽매 하도록, 우민화 정책을 쓰는 편이 종종 선호됐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다양해졌다. 길 모퉁이와 광장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광장 대신 쇼핑몰에서 모인다. 쇼핑을 경제 살리는 애국이라 여긴다. 걸인과 노숙인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쇼핑몰에 사람들이 스스로 갇히면서, “주변화된 사람들은 시민적 공감의 망으로부터 멀리 밀려난다”는 지적이다. 혹은 그저 개인으로 돌아가 사생활에 몰두한다. 민주주의 인프라인 공공성이 위축되는 현실에 무심해진다. 공공연한 정치 행위는 금지되거나 손가락질 대상이다. 최근 네이버는 대선 직후 책 추천 자문단에게 ‘오늘의 책’ 선정 기준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라고 했다가 철회했다. 담당자 실수에 의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모든 행위에 냉소적이거나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성을 배제하라는 기준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이용자의 반발은 타당하다. 소셜테이너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치와 사회 이슈에 관심 갖는 유명인사에 대한 부당한 편견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시민은 누구나 떠들 권리가 있다. 원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커밍아웃은 민주주의 시민의 자연스러운 행위다. 자꾸 입 다물라고 하는 이들부터 입 다물 일이다.

더불어 민주적 마음의 습관은 사실 교육 문제다. 저자는 호기심과 책임감, 그리고 시민 정신이 요구하는 주체성을 키우지 못하는 공교육에 대해서도 한탄한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구성한 사소한 문제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는 듯 대우받고, “성취”의 책임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들이 18세가 되는 순간 참여 민주주의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변신하기를 기대한다. (211쪽)  
  
저 대목을 읽는데 순간 멈칫했다. 우리는 떳떳한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사생활에만 몰두하는 모두가 사실 진지하게 돌아볼 문제들이 있다.

공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싶으면 사생활과 정치 사이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층위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그 세계는 권위주의, 정체주의, 귀족주의, 전제주의 그리고 파시즘 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견제 없이 군림하고, 사생활에 자유롭게 침범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려 한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려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 그리고 그 가족이나 친구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는 것 그리고 실종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등 실로 광범위하다..권위주의 사회가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권력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그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공공 영역이 없으면 민주적 통치체제도 , 안전한 사생활도 성립하지 못한다. (173쪽)  
  
지난 5년 해직 기자가 열 일곱 명이다.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가, 북한을 조롱하는 트윗을 했다가, 대통령을 쥐에 빗대 풍자한 그림을 그렸다가 감옥에 갇혔다. 미국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 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공공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이란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Shto delati?)  
  
저자는 일단 각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들리는 해법을 내놓는다. 내면에 대한 탐구다. 실상 내적 공허감이 소비주의로 마비되거나, 희생양 만들기로 이어져 공동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반대급부를 감안하면, 진지하게 들어야 할 제언이다. 저자는 “자기 내면의 그늘을 인종, 사회계급, 종교,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자신에게 결핍된 것의 탓을 그들에게 돌린다. 다른 이들을 깔아뭉개고, 그들의 열등함을 배경으로 우리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정체감을 회복한다…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희생양 만들기는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정치적 질병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무서운가? 그렇다면 내적 공허감을 방치하지 않으면 되지.

실제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도 흥미롭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것은 실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 이윤을 먼저 따졌던 농무부의 공무원은 “상사가 아니라 땅에게 대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침묵 속에 경청하는 이들 앞에서 의사는 보건시스템의 부조리함을 고백한다. 자기 나름의 내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일에서 벗어난다.   
  
이런 성찰은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절실하다. 저자는 미디어로 인해 왜곡되는 현실 감각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정리했다. 링크) 통찰력을 쌓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와 정보의 소비자와 생산자로 나서면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듯 싶지만, 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따져보는 노력,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란 얘기다.

그리고 이 같은 성찰을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지 말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아닌가.

우리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환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 멀리 있는 권력의 중심 – 의회, 로비스트, 당직자, 이사회 –을 떠올린다. 이것은 잘못이다..공공선이 실현되려면, 시민들이 그런 지역적 장소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면서 모두에게 영향을 기치는 사안에 대해 결정할 때 최선의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최악의 지도자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64쪽)  
  
우리는 출근이나 쇼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더 자주 외출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으며, 공공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고, 콘서트장에 갈 수 있다.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단 공적인 선택을 실험하기 시작하면 “불편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생명을 주는 특징이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181쪽)  
  
중대한 사회 변화는 흔들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 세계에 대해 배운 바에 입각해 당차게 행동할 기술을 계발한다면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260)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비통한 자들끼리 술 퍼먹는 사회가 될지 모른다. 시민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을 견제할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등장해야 제도적 정치권력의 공간에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현실과 열망의 간극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비통함에 허우적댈 때가 아니다.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행동해야 한다. 저자는 현실로 너무 많이 기울면, 정신을 좀먹는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고, 열망하는 것의 가능성에 집착하면 뜬금없는 이상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조언한다. 나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냉소하고 싶지 않다. 레미제라블 노래에 훌쩍이며 역시나 마무리는 영화적으로 모든게 잘될 거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한 걸음씩, 내 자리에서, 무엇인가 찾아가는 일을.. 남은 인생 내도록 해야겠다고, 착한 결심을 일단 해본다. 이것이 힐링의 첫 걸음이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절박한 인간을 외면하는 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꽤나 긴 리뷰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 너무 착한 글 탓인지, 중간중간 참 더디 읽혔으나 마지막까지 독파한 것은, 나를 위한 힐링이다. 저자가 인용한 하워드 진의 말로 마무리한다.

정의를 위한 투쟁의 핵심 요소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동안이라도 한 걸음 나서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작고 비영웅적인 행동들이 불쏘시개로 쌓여나가다가 어떤 놀라운 상황에서 격렬한 변화로 점화될 수 있다.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우리 국민은 자신이 살고 일하는 장소에서 시민공동체를 창조할 때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힘을 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목소리”가 형성될 수 있고, 제도적 정치권력의 공간에서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많은 쟁점에서 언제나 이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자, 그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견을 드러낼 때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쪽)

분노와 절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우리의 차이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온 자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어찌하여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뿐”이라는 선언은 어디로 갔는가?

링컨은.. 남과 북으을 “나쁜 놈”과 “좋은 놈”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 만약 그렇게 나누었다면 우리는 거의 국가적 자살에 이르렀을리라.

그 대신 남북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인 1865년 3월 4일에 행한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 것”과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했다… 링컨은 깊숙하게 분단된 미국을 향한 그의 호소에서 우리 삶의 핵심적 사실을 함께 지적한다. 우리가 살아남아 번영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리와 모순을 너그럽게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35)

자신의 신념을 ‘적’에게 돌처럼 던지는 대신 고통의 근원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커다란 분리를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있다.

군인들의 마음에 가해진 폭력은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부숴버린다. 그리고 폭력은 전쟁터에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짓밟을 때 폭력은 자행된다. 따라서 정치에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절박한 인간적 요구를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편리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40)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면 충분- E,M.포스터..민주주의는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

"자신이 살고 일하는 장소에서 시민 공동체를 창조할 때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힘을 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목소리'가 형성될 수 있고, 제도적 정치권력의 공간에서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창조적 갈등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당파주의는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다… 언젠가 "모두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는 환상을 좇지 않는다. 아무리 대화해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이가 좌파와 우파에 각각 15~20%..뒤집어보면 차이를 넘어 배우고 대화할 수 있는 이가 60~70%. 민주주의에서 그 정도면 곤경 벗어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55)

몇 해 전 칼럼니스트 E.J. Dionne Jr.는 “정치를 혐오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로서 오래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삶에 질서를 함께 부여하는 행위로서, 심층적으론 하나의 인간적인 기획이다. 마음이 부서져 흩어진 게 아니라 깨져서 열린 사람들이 정치의 주축을 이룬다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위해 차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힘을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따. (57)

우리는 테러의 공포에서 비롯되는 편집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개개인은 고립되어 고통받는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 개인적 집단적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59)

우리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환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 멀리 있는 권력의 중심 – 의회, 로비스트, 당직자, 이사회 –을 떠올린다. 이것은 잘못이다.. 제도 정치 최상 수준에서 공공선이 실현되려면, 시민들이 그런 지역적 장소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면서 모두에게 영향을 기치는 사안에 대해 결정할 때 최ㅣ선의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최악의 지도자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64)

정의를 위한 투쟁의 핵심 요소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동안이라도 한 걸음 나서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작고 비영웅적인 행동들이 불쏘시개로 쌓여나가다가 어떤 놀라운 상황에서 격렬한 변화로 점화될 수 있다. – 하워드 진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도록 끌어안는 것이 공공선이다.

21세기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필요한 마음의 습관을 두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뻔뻔스러움과 겸손함을 고르겠다. 뻔뻔스러움은 나에게 표출할 의견이 있고 그것을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겸손함이란 내가 아는 진리가 언제나 부분적이고 전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갖추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92)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지도자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쇼핑을 하고 상업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애국자가 되라고 강요했다. (102)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을 선동해 지성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분열시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선거 정치의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개인적 부 가운데 4분의 1을 단 1%가 갖고 있고(이는 1928년 대공황 직전 나타났던 부의 집중이다), 상위 20%가 85%의 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닌 경제학적 함의를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해도 당신의 반대자들이 “가족 신앙, 애국심’을 옹호하게 되면 당신은 – 비록 하위 80%에 속한다 해도 –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나게 ㅍ투표를 할 것이다. (104)

마음으로 느끼는 시민적 가치와 냉혹한 정치 세계 사이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 한 남자는 아이오와에서 25년 간 농사를 지었고, 이후 10년 간 농무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표토의 보존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했다. 귀중한 천연자원인데,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들에 의해 파괴되고…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경우 심각한 곤란에 처한다는 것, 특히 농업회사 돈을 받은 상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 나느 한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 나는 상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땅에게 대답합니다. (110)

나는 갈등이 없는 공공영역을 상상하지도 염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삶의 염원과 비슷.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갈등은 추방된다. 물론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쫓겨날 뿐이고, 폭력이 강요하는 단일함의 환상이 그 자리를 채운다. 건강한 민주주의 속에서 공적 갈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장려되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창의성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등을 둘러싼 여러 비판적 질문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117)

내적 공허감의 치료제. 소비주의. 두번째 거짓 치료제는 희생양 만들기. 이는 고삐 풀린 소비주의보다 훨씬 치명적 겨로가를 개인과 공동체에 가져온다…우리는 자기 내면의 그늘을 인종, 사회계급, 종교,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자신에게 결핍된 것의 탓을 그들에게 돌린다. 다른 이들을 깔아뭉개고, 그들의 열등함을 배경으로 우리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정체감을 회복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희생양 만들기는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정치적 질병을 키운다. (122)

낯선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라는 것, 어떤 차이들은 삶을 풍부하게 하고 골치 아픈 차이들은 타협될 수 있다는 것, 갈등하는 이해ㅗ간계에 직면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종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사회 속에 풍부할 때, 우리 국민은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생동하는 실체가 될 수 있다. (170)

공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싶으면 사생활과 정치 사이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층위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그 세계는 권위주의, 정체주의, 귀족주의, 전제주의 그리고 파시즘 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견제 없이 군림하고, 사생활에 자유롭게 침범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려 한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려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 그리고 그 가족이나 친구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는 것 그리고 실종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등 실로 광범위하다. . 권위주의 사회가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권력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그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공공 영역이 없으면 민주적 통치체제도 , 안전한 사생활도 성립하지 못한다. (173)

민주주의 인프라를 이루는 비판적 공적 층위가 서서히 침식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사생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공공성의 위축에 대해 거의 망각하고 있다… 주된 징후는 많은 공공 도로의 상업적 기능이 사적으로 소유된 쇼핑몰로 대체되어왔다는 사실… 걸인과 노숙인은 들어갈 수 없고, 이러한 주변화된 사람들은 시민적 공감의 망으로부터 훨씬 멀리 밀려난다. 공공연한 정치 행위도 역시 금지되는데.. (175)

우리는 출근이나 쇼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더 자주 외출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으며, 공공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고, 콘서트장에 갈 수 있다.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단 공적인 선택을 실험하기 시작하면 “불편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생명을 주는 특징이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181)

내면 탐구와 공교육. 나는 세상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재능을 타고 났는가. 내 인생은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내적인 삶에 대한.. 자신의 삶 한 가운데 충실하게 붙들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 교실에서 민주적 마음의 습관을 가르치고 싶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탐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은 호기심과 책임감 그리고 시민 정신이 요구하는 주체성을 키우지 못한다..학생들은 어른들이 구성한 사소한 문제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는 듯 대우받고, “성취”의 책임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들이 18세가 되는 순간 참여 민주주의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변신하기를 기대한다. (211

--------------

우리가 정치 세계를 규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미디어에게 부여할 때,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왜곡된 현실 감각과 망가진 마음의 습관이다. 그렇게 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미디어가 세상의 문제를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 영향력을 발휘할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뉴스가 정보를 다루는 속도와 규모는 시민에게 행동할 힘을 실어주는 대신, 정보의 과부하와 사생활로의 퇴각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미디어가 복잡한 사건과 쟁점들을 묘사할 때 고도로 선별된 이미지와 사운드 비트를 사용한다. 그 결과 현실 이해에 필요한 확장된 탐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한다.

미디어는 최근의 부정행위, 스캔들, 비극 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로 그것을 판매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둠과 빛이 뒤섞여 있는 세계에 대해 불균형한 그림을 갖게 된다.

미디어는 우리의 짧은 주의력에 영합하고, 그것을 악화시킨다. 지난주의 뜨거운 이야기는 – 거기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계속 중요할 수도 있는데 – 이번 주의 큰 사건 소식을 통해 의식에서 지워진다.

미디어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파헤친다 해도 가끔 엉뚱한 것에 탓을 돌린다. 우리는 고통에 흠뻑 젖어 둔감해지거나 압도적인 감정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통과해 고통을 근원에서부터 천착하려 하면 미디어는 잘못된 곳으로 안내하는 경향이 있다.

영상 미디어는 전쟁터, 범죄에 멍든 지역, 또는 정치 집회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봤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미디어가 세상을 보는 유일한 눈이 된다면 우리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전적으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스스로에게 설득하기가 어렵다.

미디어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몇몇 거대 기업은 좋은 저널리즘보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인 의제를 앞세울 때가 많다. 그래서 일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장사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보도하도록 몰아간다. (244-245) 弔鐘

이상주의자가 가장 쉽게 굴복하는 현대적 폭력의 그릇된 형태가 하나 있다. 실천과 과로가 그것이다. 현대적 삶의 분주함과 압박감은 내적인 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수많은 갈등적 관심사에 쏠리고, 너무 많은 요구를 수락하고,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을 돕고 싶은 것이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활동가의 열광은 자신의 일을 무효로 돌려놓는다. ..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의 결실을 파괴한다. 일의 결실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적 지혜의 뿌리를 죽이기 때문이다. (250. 1968년 머튼의 책 ‘유조의 방관자에 대한 추측’에서 나오는 한 구절\_ ‘

서로에게 조언을 하는 대신, 우리는 상대방을 경청함으로써 그가 더욱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나름의 내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던진다.. (침묵의 힘?)\_

우리는 내면의 교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

중대한 사회 변화는 흔들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 세계에 대해 배운 바에 입각해 당차게 행동할 기술을 계발한다면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260)

디지털 미디어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정치적 견해와 정보의 소비자 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보탬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로서 읽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ㅏㄶ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쭉정이로부터 알맹이를 추려내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272)

다른 사람이 내게 가하는 어떠한 처벌도, 자신이 왜소해지는 것에 공모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가하는 처벌보다 더 클 수 없다. (291)

모든 세대에서 우리는 현실과 열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계속 힘써야 한다. 그 간극은 언제나 벌어져 있고, 그것을 좁히려 시도하는 이들은 언제나 비통하다…개인적. 정치적 삶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모든 긴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것은 “비극적 간극”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행동하는 것이다. 현실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정신을 좀먹는 냉소주의에.. 가능성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뜬금없는 이상주의에 빠진다.. 우리가 비극적 간극 속에서 오랫동안 희망을 가지고 견디며 행동하려면, 단지 “효율성”을 성패의 궁극적 척도로 삼을 수 없다.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 바로 충실함이라는 기준이다.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공동체에 충실한가?